



미래경관을 창조하는 기업

유원종 (주)준원도시경관연구센터 대표 (yuwj@hanmail.net, 017-232-5249)

(주)준원도시경관연구센터는 도시공간과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하면서 공간디자인과 경관창조를 중심으로 노력하는 신생회사이다. 감성적인 도시경관창조를 위한 인재양성과 효율적인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주)준원도시경관연구센터 유원종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인생관과 경영철학을 들어본다.

- 일 시 : 2008년 8월 13일(수) 11:00
- 장 소 : (주)준원도시경관연구센터 대표실
- 참석자 : 유원종 대표, 한국기술사회 정무용 홍보위원장, 노우석 사원

■ 대표님의 주요 약력에 대하여 말씀해주시오.

학문과 실무를 모두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에 대한 식견과 교육은 홍익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기술사를 취득하고 경원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경관에 대한 연구로 공학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연구소는 흥대부설환경개발연구원, 한국산업경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산업체는 도화 종합기술공사, 건화종합기술공사, 남원건설엔지니어링과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경기도 도시계획과 도시정책 연구위원, 그리고 2000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경원대학교 도

시계획 조경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하면서 산·학·연·행정 등을 두루 경험하여 목표한 바를 어느 정도는 이룬 것 같습니다.

2004년부터 (주)준원 도시경관 연구센터에 정착함으로써 새동지를 마련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도시경관계획을 수행하는 유일한 업체로서 도시공간과 환경의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경관계획과 공간계획을 선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기술사로서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역시 우리나라 지도를 바꾸어 놓은 새만금 기본구상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8년 한국산업경제연구원 근무 시 수립된 이 계획에서는 토지창출, 수자원 확보, 해상물류허브(연계되는 고군산군도 20만 톤 상선 접안기능)가치창출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내부공간구상은 아그리폴리스, 테크노폴리스, 에코폴리스, 종합우주센터 등을 마음껏 구상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광대한 새만금부지에 형성될 염생 식물인 갈대습지형성, 새로이 등장 될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서의 명성을 은근히 기대해보기도 합니다. 현재 상암동 월드컵구장, 골프장, 마리나시설 구상의 단초가 된 마포구생활권계획이 있습니다. 단지 며칠 밤을 새워 만들었던 난지도 종합계획이 필요한 시기를 만나면 그대로 실현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때 경험하였습니다. 전문가와 기술자로서의 책임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경관계획과 관련된, 수원시 도시경관계획, 아산시 도시경관계획, 시흥시 도시경관계획 등의 수립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 향후 신규로 진출하고자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준원 도시경관연구센터는 도시경관 계획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MACRO) 경관계획구상을 위한 체계는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는 환경디자인과 같은 작은 규모(MICRO)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신규로 진출하고자하는 사업도 경관을 중심으로 하향적 체제(Top Down)와 상향적 체제(Bottom Up)를 완성시키는 것으로 준원은 경관중심 전문회사로 특화 발전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로는 경관과 관련된 멋진 책 한 권을 쓰고 싶고, 하나를 더 보탠다면 상시 승무 공연을 볼 수 있는 아틀리에를 수원 화성에 만들어서 직원들과 더불어 쉬고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현재 도시계획기술사회 회장으로서 추진하고 계시는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도시계획 기술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기술정보의 수집, 보급, 도시계획 관련분야 법규, 제도, 정책건의, 국토개발 계획표준품셈의 개정, 상담, 도시계획 관련 교육기관 협력(기술사회 CPA교육, 도시계획 관련 졸업작품 평가, 포상)등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와 같이 수행하는 춘계 산학 협동학술대회의 지속적 발전방향모색을 위한 산학 실무소위원회, 조직적인 법제 연구, 검증, 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 실무 소위원회, 국토 및 도시공간의 현안 사항을 이슈화하고 정립하기위한 가칭 '국토·도시포럼'의 운용, 그리고 기술 실명제(기술도면, 보고서 등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검토를 확인하는 인증제)의 제도적 도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평소의 생활신조나 좌우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잡초처럼 살자' 입니다. 수많은 환경변화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명력을 가지며 조그마한 상황도 즐길 줄 알고 세상에 겸손 할 줄 안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조금 위를 돌아보면 도시경관이라는 지평이를 가슴에 안고 코발트빛 하늘을 보며 녹색 숲으로 돌아드는 목표설정 과정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태면 '태극권의 밖으로는 솜털같이 부드러우면서 내부로는 강한 에너지의 흐름을 가지는 기본정신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기술사회와 기술사 후배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조언해주세요.

우리 전문가와 기술사들은 사회 발전과 개선을 위한 '쓴 약'과 "소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는 포폴리즘을 따르는 전략적 사고보다는 합리성, 종합성 공공성, 미래성등과 같은 변하지 않는 덕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을 통한 사회봉사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일을 즐기며 더 높은 안목과 차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